

콩의 생산과 수급동향

정리 : 편 집 실

우리나라의 콩 재배면적은 전남·전북·경남·제주등 남부 4개도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별 콩생산량의 추이는 재배면적과 비례하여 생산량도 전남·경북 순위였다.

콩의 증가된 수급량은 수입량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대부분이 가공용에 속한다. 이와같이 증가일로에 있는 수입량으로 인하여 자급도는 16%로 저하되었다.



1. 국내콩 소비실태

콩은 예부터 간장·된장 및 콩나물·두부등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품원료로서 쌀·보리등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에게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특히 비타민 A·B·D·E등)를 보충시켜 줌으로써 균형적인 국민영양을 유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처럼 우리의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식품인 콩은 최근 인구증가와 소득수준향상에 따른 식품비구조의 고급화와 다양화로 국내수요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콩의 국내 총소비량은 1970년의 26만 6천톤에서 1987년에는 122만 5천톤으로 약 4.6배나 된다. 이처럼 국내 콩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최근 밥밀콩등의 단순 식용소비와 콩나물·두부·두유·장류등 일반식품의 가공소비는 둔화되거나 보합세에 그치고 있는 반면, 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배합사료의 원

료로 사용되는 대두박과 대두유 생산에 쓰이는 사료용이나, 콩기름으로 쓰이는 유지용 콩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 및 가공용 콩의 국내수요는 1970년 24만 1천톤에서 1987년에는 36만 1천톤으로 1.5배가 증가되었으며, 사료용 콩의 국내수요는 같은 기간중 2만 5천톤에서 86만 4천톤으로 무려 34.6배나 증가하였다.

이와같이 사료용 콩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콩의 전체소비량 중 식용 및 가공용의 구성비는 1960년의 9.4%에서 1987년에는 70.5%로 크게 늘었다.

앞으로도 국민의 소득이 향상함에

따라 국민 1인당 콩의 소비량은 밥·밀·콩등 알곡상태로 이용하는 순수한 식용의 경우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콩나물·두부·장유등 식품가공용의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개발에 따라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두유와 대두박 생산에 이용되는 사료용의 경우에는 축산물 소비증대에 따라 그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콩의 수요증가는 과거와 같이 급격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사료용 콩에 의해 계속 주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정된 콩의 용도별 수요 전망은 <표1>에서와 같다.

한편, 국내콩 생산량은 1970년의 23만 3천톤에서 1977년에는 31만 9천톤까지 증가하였으나, 그후 소득작목의 다양화등 농업구조가 바뀌어 1987년에는 20만 3천톤이 생산되었다. 이에따라 식용가공 및 사료용을 포함한 국내콩의 전체 자급율은 1970년 86.1%에서 1987년에는 16.22%로 급격히 떨어졌고, 국내수요 충당을 위한 콩 도입량은 1970년 약 4만톤에 불과하던 것이 1987년에는 식용가공용 19만톤, 사료용 94만톤등 전체 113만톤으로 크게 늘어났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콩도 밀이나 옥수수처럼 국내 생산기반이 완전히 붕괴될 위험성이 있어 이의 대처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콩수요의 장기전망

<표1>

	1983	지수	1987	지수	1991	지수	2000	지수
계	907 (100)	100	1,225 (135)	100	1,796 (198)	100	3,298 (364)	100
식 용	355 (100)	39	361 (102)	29	396 (112)	22	485 (137)	15
사료용	552 (100)	61	864 (157)	71	1,400 (254)	78	2,813 (510)	8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국내총생산동향

<표2>

	'70	'77	'80	'83	'85	'87
면적(천헥타)	295	251	188	182	156	154
단수(kg)	79	127	115	124	150	132
생산량(천톤)	232	319	216	226	234	203

2. 콩생산과 수급동향

콩의 재배면적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 1950년부터 1978년 사이에는 24만 4천ha에서 38만 8천ha까지의 범위였으나, 그후 점차 감소되어 1987년에는 15만 4천ha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은 재배면적의 감소로 인하여 생산량도 1977년의 31만 9천톤을 최고로 점차 감소하여, 1987년에는 20만 3천톤으로서 10년간에 11만 6천톤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재배면적의 감소비율에 비하여 생산량의 감소비율이 적은 것은 지난 15년간의 단위생산량이 약 2배로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재배면적의 변화를 지역별로 보면 각도에서 모두 감소 되었으나, 1970년부터 1987년 사이에 50% 이상 감

지역별 콩 재배면적 변화

〈표3〉 (단위: 천ha, %)

지역별	1970		1980		1987		'87/'70 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경 기 ¹⁾	35.8	12.0	19.6	10.4	12.2	7.9	34.1
강 원	27.5	9.2	14.7	7.8	14.1	9.2	51.3
충 북	28.2	9.5	14.9	7.9	11.3	7.3	40.1
충 남	46.3	15.5	26.6	14.1	15.3	9.9	33.0
전 북	26.6	8.9	14.1	7.5	9.0	5.9	33.8
전 남 ²⁾	39.6	13.3	38.8	20.6	42.4	27.6	107.0
경 북 ³⁾	59.2	19.9	34.1	18.1	23.4	15.2	39.5
경 남 ⁴⁾	24.8	8.3	17.8	9.4	17.1	11.1	69.0
제 주	9.6	3.2	7.7	4.1	9.0	5.9	93.9
계	297.9	100.0	188.4	100.0	153.8	100.0	51.6

※ 주 : 1) 서울, 인천포함 2) 광주포함 3) 대구포함 4) 부산포함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통계연보, 1988

소된 지역은 충남·전북·경기·경북·충북 순이고, 50% 이하가 감소된 지역은 강원·경남·제주 순이었다.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남 지역의 재배면적이 전국 재배면적 중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1970년의 13.3%에서 1987년에는 27.6%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남지역만은 1971년부터 17년간 재배면적이 계속 유지 또는 증가하여 1970년에는 대비 7%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다른 도와의 다른 점이다. 이것은 비교적 안정된 콩나물용 콩의 수요로 인한 것이고, 특히 콩나물용 콩에 있어서는 수입 콩보다 내국산콩을 선호하고 있고, 콩나물콩의 주산 단지가 주로 전남 남해안지역에 산재하고 있음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콩 재배면적은 전남·전북·경남·제주등 남부 4

개도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 콩 생산량 추이는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배면적과 비례하여 생산량도

전남·경북·경남 순위였다.

한편 1980~1987년 기간중의 생산량을 보면 최고 25만 7천톤(1981)에서 최저 20만 3천톤(1987)으로써 평균 22만 8천톤에 이르고 있다. 전남 지역이 전국의 총생산량 중 1970년에는 11.2%, 1975년에는 16.2%, 1980년에는 21.2% 1987년에는 25.6%로서 연차별로 증가하여 전국 생산량의 1/4이라는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재배면적의 유지(維持) 및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제 전남지역은 우리나라 콩재배의 주산지로서, 콩나물용 콩의 원산지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콩의 수급량은 〈표5〉에서 보는바와 같이 1980년에 73만 3천톤이었던 것이 1987년에는 약 1.7배 증가된 122만 5천톤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이 증가된 수급량(需給量)은 수입량

지역별 콩 생산량 추세

〈표4〉 (단위: 천톤, %)

지역별	1970		1975		1980		1987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경 기 ¹⁾	27.5	11.9	35.3	11.4	23.3	10.8	15.8	7.8
강 원	24.0	10.4	38.5	12.4	15.6	7.2	19.0	9.3
충 북	25.8	11.1	24.0	7.7	17.4	8.0	18.7	9.2
충 남	38.3	16.5	41.3	13.3	29.1	13.5	19.8	9.7
전 북	20.1	8.7	23.2	7.5	15.6	7.2	11.1	5.5
전 남 ²⁾	25.9	11.2	50.2	16.2	45.9	21.2	52.1	25.6
경 북 ³⁾	48.5	20.9	61.7	19.8	42.2	19.5	33.0	16.2
경 남 ⁴⁾	17.7	7.6	26.6	8.6	19.8	9.2	22.7	11.2
제 주	4.0	1.7	9.6	3.1	7.3	3.4	11.2	5.5
계	231.8	100.0	310.4	100.0	216.2	100.0	203.5	100.0

※ 주 : 1)서울, 인천포함 2) 광주포함 3) 대구포함 4) 부산포함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통계연보, 1988

연도별 수급량 및 자급도

<표5>

구 분	1980	1982	1984	1986	1987
생산량(천톤)	216	233	254	199	203
수입량(천톤)	417	536	694	944	1,131
(사료용)	(333)	(432)	(564)	(789)	(940)
(식 용)	(84)	(104)	(130)	(155)	(191)
수급량(천톤)	733	792	960	1,247	1,225
(식 용)	(400)	(361)	(378)	(387)	(361)
자급률(%)	35.1	32.4	23.5	18.8	16.2
(식 용)	(64.3)	(71.2)	(63.1)	(60.5)	(55.1)

※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통계연보, 1988

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1980년에 41만 7천톤이었던 것이 1987년에는 2.7배가 증가된 113만 1천톤이 수입되었으며, 그중에서 83%인 94만톤이 사료용이고, 19만 1천톤이 식용콩으로서 대부분이 가공용(加工用)에 속한다.

이와같이 증가 일로에 있는 수입량으로 인하여 자급도는 16%로 저하되었다. 한편 국내생산량은 콩나물용등의 식용콩으로 이용되며, 국산 식용콩의 자급도는 1980년의 64.3%에서 1987년에는 55.1%로 감소되었다. 이처럼 사료용 콩의 소비량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것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합사료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앞으로도 축산물 수요 증대에 따라 사료용 콩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국내콩의 가격동향

연도별 콩의 가격 변동추세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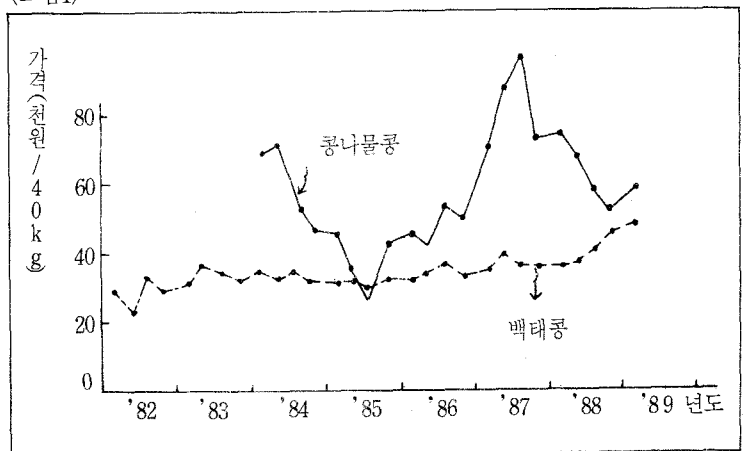
면, 일반콩의 경우 1985년에 40kg당 3만원 정도였던 것이 1989년 4월 현재 4만 5천원까지 꾸준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콩나물콩의 경우에는 연도별 가격진폭이 심하여 40kg당 1984년도에는 평균 6만원대를 유지하다가 1985년도에는 3만원대로 떨어졌으며, 1987년에는 7만 5천원대로 폭등하였다가 다시 떨어져, 1989년 4월 현재에는 5만 5천원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1990년 3~5월에는 무려 12~14만원을 호가한 예도 있었다. 이는 전년도의 콩나물콩 작황부진과 일부 중간상인들의 매점매석에 의하여 급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정부의 콩나물콩에 대한 수급정책 부재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현재 1990년도에 수확예정인 콩나물콩의 작황을 살펴볼 경우 전년도와 같이 부진한 것으로 예측되어, 1991년 콩나물콩의 수급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어 정부의 콩나물콩 수급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콩의 월별 가격변동추세를 보면, 일반콩일 경우 채소작물과는 달리 작황이나 재배기술이 평준화되어 월중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으나, 콩나물용 콩의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 심한 폭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콩나물이 계절에 따라 수요가 급변하고, 따라서 주원료인

연도별 국내 콩가격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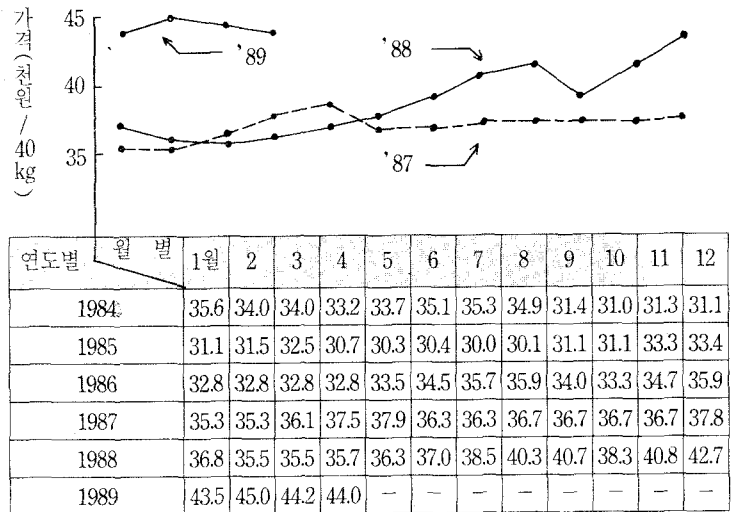




일반콩의 월별 가격동향

<그림 2>

가격
(천원 /
40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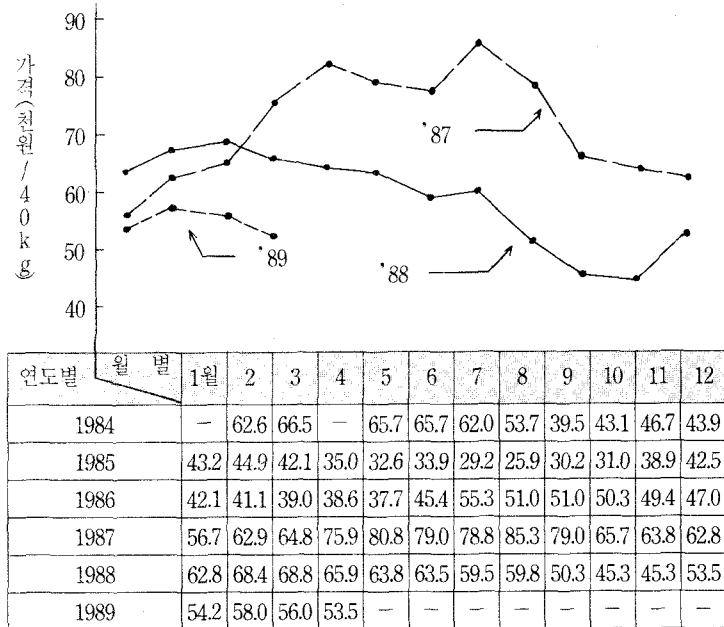


* 자료 : 농업경영관실, 주요농산물 가격동향, 1988.

콩나물콩의 월별 가격동향

<그림 3>

가격
(천원 /
40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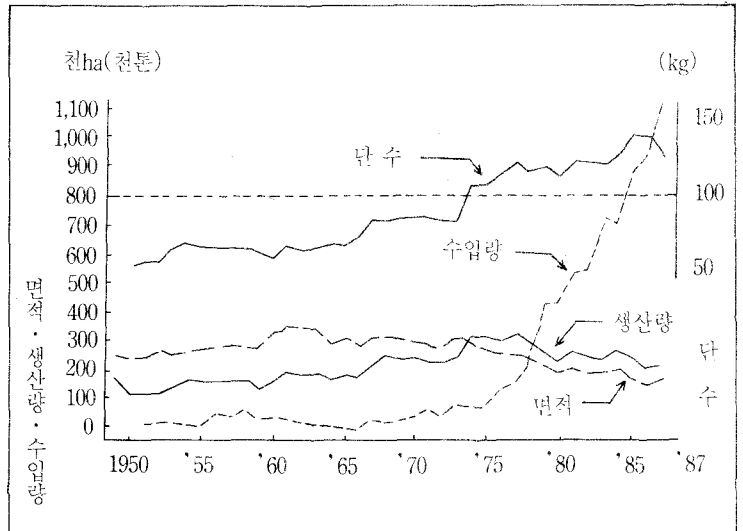
* 자료 : 농업경영관실, 주요농축산물 가격동향,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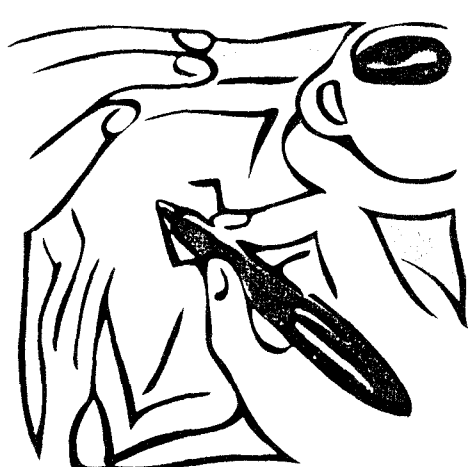
콩나물콩의 수요와 직결되기 때문이고, 대부분 가을추수 직후 농민의 손을 떠난 콩나물용 콩은 몇단계의 중간상인을 거치고, 콩나물소비가 급증하는 다음해 초봄경에는 거의 2~3배로 상승하는 예를 간혹 볼 수 있다.

일반콩의 경우 <그림3>에서 보는바와 같이 월별 가격진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콩나물콩은 1987년의 경우 1년중 월별 가격진폭이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편적으로 일반콩이 콩나물콩에 비하여 가격진폭이 심하지 않은 이유는 적은 양이나마 정부에서 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농장서 쉽게 간이저장할 수 있고, 간이저장에 따른 감소량이 적기 때문이다.

생산 및 수입추세

<그림4>





원고모집

.....

우리의 벗 「두채」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투고할 수 있는 열려진 마당입니다. 언제든지, 또 어떤 종류의 글이든지 보내주십시오. 아주 소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 138-160) 서울·송파구 가락동 189-13 웅진빌딩
 두채정보사(한국두채협회 중앙회) 편집실
 전화 : 408-8879 / 409-7694~5